

비적정 감사의견 쏟아진다 **이제 거절** **한정 의견** 상장사 '상폐 주의보'



NH투자증권

주식수수료 무료 이벤트

NH투자증권의 모바일증권 '나무'는 온라인 국내주식 수수료 평생무료 이벤트를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경품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한다. 주식수수료 평생 무료 혜택은 업계 최장 1년 동안 제공되며,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의 대상은 나무 비대면 계좌개설 고객 중 당사 최초 신규 및 휴면고객이며, 유관기관 제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증권사 계좌에서 주식을 옮겨온 고객에게 최대 3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김문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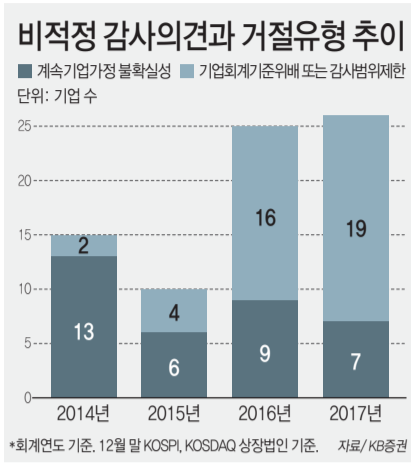
작년 기업 26곳 감사의견 '비적정' 외부감사인의 '원칙강조' 등에 2018년도 감사서도 늘어날 듯

회계리스크에 상장사가 좌불안석이다. 최근 비적정 감사의견 사유가 기업회계기준의 해석이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지금까지 비적정 감사의견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가능성 여부에 집중됐다.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은 사형 선고나 다름 없어 투자자들의 요구된다. 특히 의견거절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사인이 회사 존립의 불확실성을 문제 삼아 '한정' 의견을 낸 회사의 상당수는 상장폐지 되는 경우가 많다.

상장법인의 2018년 결산에 대한 외부감사 작업은 이미 시작했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회계법인은 감사대상 기업에 증빙자료 요구, 담당 회계사 교체, 기간연장 등 엄격한 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K



B증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곳은 26곳이다. 이 가운데 19곳이 감사범위제한 등에 기인한 '한정의견'과 '의견거절'이었다. 나머지 7개사('감사범위제한' 중복 1개사 포함)는 '불확실성'의 사유였다.

이러한 추세는 2018년도 회계감사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비적정의견(의견거절 포함)이나 회계적 논란(적정의견이 나가더라도)도 덩달아 많아질 전망이다.

왜 이런 일이 늘고 있을까.

우선 외부감사인이 그동안의 회계 업계 관행을 깨고 감사인이 지켜야 할 원칙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는 업계 판단이다. 또한 외부법 등의 개정으로 감사인에 대한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감사인의 위험 회피 성향이 짙어졌다.

반면, 몇몇 기업들은 이 같은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인해 회계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일부 기업들은 복잡한 거래의 회계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지나치게 감사인에게 의존해 온 기업은 '독립성'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이들에게 기밀수 없게 됐다.

KB증권 김세용 연구원은 "최근 제정 또는 개정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회계처리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다. 또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강화되고, 엄격한 감사절차 준수 경향은 물론 금융당국의 감독도 강화됐다"면서 "여기에 추정과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객관적 근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기

업의 경영환경도 악화되고 있다"며 이들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은 기업들이 감사의견 관련 이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회계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감사범위제한 등에 기인한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은 사전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계속기업 가정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기업은 대부분 관련 내용이 시장에 노출된다. 향후 처리 방향 등이 궁금할 뿐 그 자체는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감사범위제한 등에 기인한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은 예상치 못한 이벤트로 시장참여자에게 미치는 충격은 예상 이상인 경우가 많다.

김 연구원은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에 투자할 때는 개별적으로 경영진의 평판, 산업의 특성, 거래나 회계처리의 복잡성, 기업과 재무제표에서 추정에 대한 의존도 등을 신중히 평가해 거래 및 계약 조건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KB증권

최대 7.1% ELS 등 9종

KB증권은 오는 15일까지 S&P500지수와 홍콩항셱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탁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활용해 최고 연 7.1%(세전)의 수익을 제공하는 KB able ELS 792호(3년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를 포함한 원금비보장형 주기연계증권(ELS) 4종 및 파생결합증권(DLS) 3종, 원금지급형 기타파생결합사채(DLB) 2종 등 총 9종의 상품을 공모한다.

/김문호 기자

한투증, 당기순익 4983억... 3년연속 1위

자기자본이익률 11.2%로 1위차지 위탁매매·자산관리 등서 우수성과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당기순익의 4983억원으로 자기자본 4조 이상 초대형 IB 가운데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자기자본이익률(ROE) 역시 11.2%로 초대형 IB 중 유일하게 10%를 넘겨 3년 연속 1위를 지켰다.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 및 국내외 증시 위축에도 위탁매매(BK) 부문, 자산관리(AM) 부문, 투자은행(IB) 부문, 자산운용(Trading) 부문 등 전 부문에서 안정적인고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부동산 및 대체투자 등 IB부문

수익과 채권 운용 수익 증가가 우수실적을 견인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업계 최고 수준의 영업실적을 달성해온 한국투자증권은 이러한 성장동력이 고객과 시장의 신뢰에서 비롯됨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IB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 강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국내에선 초대형 IB 선도 증권사로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계열사 및 본부 간 시너지를 일일화하고 가용 자원을 최적화하면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증권은 지난해 출범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의 성공적 안착과 홍콩 및 베트남 현지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신임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글로벌 금융투자' 교육 금투협, 이달말까지 접수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글로벌 금융투자' 집합교육과정을 오는 3월 19일부터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2월 28일까지다.

'글로벌 금융투자' 과정은 세계 주요 국가의 주식시장·경제·금융투자상품의 전망 및 투자전략 등을 학습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해당 교육과정은 프라이빗뱅크(PB) 업무 및 고객 상담 관련 업무 종사자, 글로벌 금융시장 관련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제, 자본시장, 금융투자상품 현황·전망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와 관련한 경제정책, 환율, 세금 등의 투자환경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세계 금융시장의 투자동향과 사례분석을 통해 글로벌 투자분석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키움증권

'연금365' 이벤트 진행

키움증권은 연금 펀드 및 TIGER 상장지수펀드(ETF) 매수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9일까지 '연금365'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금365' 이벤트는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펀드 및 TIGER ETF를 최초로 매수한 고객에게 펀드 쿠폰(1만원권 3매) 및 백화점 상품권(최대 3만원)을 지급하며, 해당 잔고를 6개월 동안 유지하면 2만원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순증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최대 3만원)을 지급하고, 10만원 이상 매수한 고객 전원에게 '키움 히어로즈'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공한다.

/손영지 기자

'소 근출혈 보상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NH농협손보, 6개월 사용권 인정 '피보험이익결합제도' 9개월 사용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달 31일 근출혈 발생으로 인해 고기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소 근출혈 보상보험'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근출혈이란 근육에 존재하는 모세혈관이 과열돼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는 현상으로 고기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근출혈이 발생하면 축산 농가는 마리당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손해가 발생한다.

이달 초 출시한 소 근출혈 보상보험은 근출혈로 인한 축산농가의 소득손실액을 보전하는 소 1두당 보상률인 '소 근출혈 보상률'을 최초로 개발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았다.



고기 품질하락에 따른 농가의 직접적인 손해와 손해 발생에 대한 출하조합과 공판장의 책임을 보장하는 배상책임손해를 결합 담보하는 '피보험이익결합제도'도 개발해 독창성을 인정받아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또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공식 가격을 반영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공시 연동형 보상제도'는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 9개월간의 독점 판매권을 갖게 됐다.

/김희주 기자 hj9@

삼성자산운용, 온라인 재무설계 플랫폼 선포

홈페이지서 가입없이 맞춤형 서비스 시뮬레이션 통해 포트폴리오 제안

삼성자산운용은 7일 새롭게 리뉴얼한 홈페이지를 통해 첨단 금융공학 기술을 적용한 온라인 재무설계 플랫폼을 선보였다.

온라인 재무설계 플랫폼은 투자자가 자신의 나이, 투자기간과 금액, 재무목적 입력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달성 확률과 함께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시스템이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2~3배 높고 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GBI 시뮬레이터' 플랫폼에서는 투자

자의 재무상황은 물론 경제의 호황, 불황 등 다양한 시장상황을 반영해 투자목적에 따른 달성 확률을 산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33세의 A투자자가 향후 5년 후 약 3억원의 주택구입 자금 마련을, 10년 후엔 약 1억원 남짓의 대출금 상환, 20년 후엔 약 5억원의 노후자금 마련을 목표로 시스템에 입력한 후 결과를 조회하면 재무목적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 각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계산되는 식이다.

시뮬레이터는 약 3300여 시장 상황 시나리오를 분석해 경제의 호황과 불황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확률을 보여줄 뿐 아니라, 달성 확률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기간별 자산 보유 비중과 펀드 포트폴리오까지 추천해 준다.

이외에도 새롭게 선보이는 삼성펀드와 KODEX 홈페이지는 고객의 효과적인 재무설계를 돕는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했다.

/김문호 기자